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35회)

제10편 소사신앙촌 시대 제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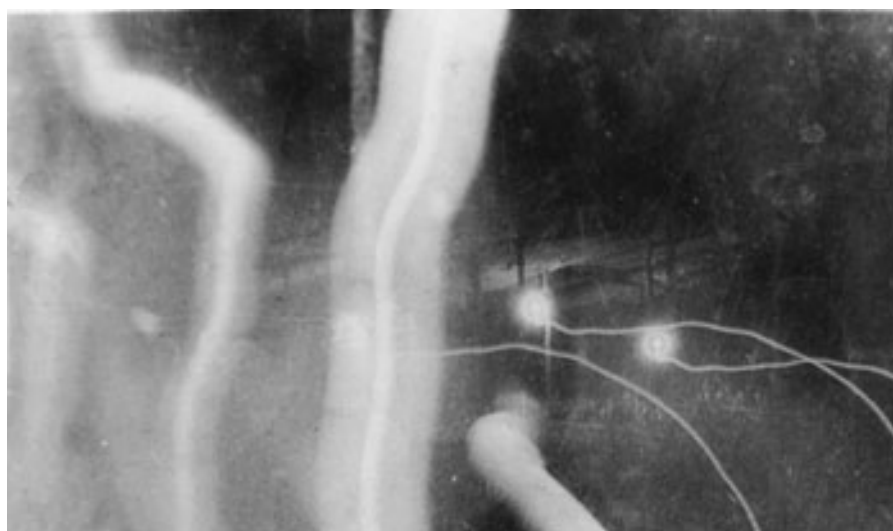
- 제 10편
 소사신앙촌 시대 제1부
 一. 신앙촌(信仰村)이란?
 二. 첫째신앙촌·소사신앙촌·첫째올타리
 1) 소사신앙촌
 2) 소사신앙촌이 건설된 장소
 3) 소사신앙촌 생활
 4) 영모님이 세운 하늘의 법 앞에 쓰러져나가는 신앙촌사람들
 5) 노구산 집회: 기우제
 6) 소사신앙촌의 호사다마(好事多魔): 영모님의 구속과 4.19혁명
 7) 영모님의 구속 동기
 8) 영모님의 재판
 9) 불법적으로 영모님을 처단 시도
 10) 마귀당 총회(總會)를 결성하다; 모세를 모반한 고라당

제일 먼저 신앙촌 자체의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 공장은 다 가동이 중단되었다. 품질이 좋다고 평이 났던 많은 제품들은 일제히 생산이 중단되었다. 그런 속에서 제과공장의 기술자들은 당시 해태제과로 많이 가서 해태제과를 한국 최고의 제과공장이 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신앙촌 안에는 경제적으로 지탱해 나갈 길이 막막해지기 시작했다. 신앙촌 내의 사정이 이와같이 되니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긴 것은 건설대원들의 문제였다. 이들 건설대원들이야말로 오직 구원과 영생과 왕의 반열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영모님을 따른 사람들의 대표격인 존재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소사신앙촌에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또 갈 곳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때에 영모님편에 서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들 건설대원들에 대한 의논이 있었다. 이런 전국 전도관을 동원해서 이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을 것이고 또 무난히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당시 영모님이 육고를 치르시는 동안 몇몇 사람만이 주축이 되어 다른 사람들과 의논도 없이 건설대원들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발전이 고도로 된 상태였다면 건설대원들이 무슨 일이라도 하려들면 자기 목숨이나 연명해 나가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었겠으나 당시의 한국의 사정은 그렇지 않았다. 결국 건설대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건설대원들 특히 여자대원들이 갈 곳은 식당종업원이나 가정집의 가정부다. 그러나 당시 이런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은 행운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 곳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여자 대원들은 대부분이 술집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와같은 역사는 참으로 비극적인 역사이고 기가 막힌 역사였다. 또한 가슴 아픈 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건설대원들의 비극적인 소식을 육중에서 들으신 영모님은 "저 불쌍한 것들!" 하시면서 통곡을 하셨다.

영모님이 안계시는 동안에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으나 그중에서도 제일 가슴 아픈 것은 하늘의 사립 영모님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말살시키려는 대표적인 사건일 것이다. 마귀는 영모님의 터전을 송두리째 뽑아 흔들어 놓으려고 독버섯처럼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서울 시내 전도사들은 다 총각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서울 시내 관장들은 마치 특수하게 임무를 받은 특수층인 것같이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영모님을 통해서 특별히 관리 되어 온 총각관장들이었다. 그럴 것이 서울시내 관장들은 영모님이 특별히 뽑아서 서울에 세웠고 또 매일같이 서울 시내 관장들을 소집하여 매일 안찰을 해주시고 영모님과 회의를 하고 영모님을 통하여 직접 지시를 받곤 하였다. 엄격히 표현하면 영모님의 직할 부대였던 것이다. 필자는 영모님이 육중에 계시던 1958년도에 성동구지관에 시무하고 있었다.

하루는 원천지관의 김봉대, 종로지관의 윤재춘과 같이 이만제단에 갈 일이



박태선 장로님은 이슬성신을 3년간밖에 내리지 못했다(전도관 당시 내린 이슬성신)

있어서 이만제단 관장인 이정길목사 사택에 들렀다. 그런데 이정길 목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작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하면서 들여다 보았다. 그랬더니 이정길 목사가 하는 말이 "이! 이것은 총회 현장을 작성하는 것이예요" 하면서 보충설명을 하는 것이다. 원래 이정길 목사의 성격은 단순한 성격이다. 속이거나 술수를 쓰는 그런 성품이 아니다. 그러니 거짓없이 다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 원로장로들이 모여 의논을 하였는데 전도관을 이대로 놔두면 망하게 되니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총회를 결성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총회 현장 내용은 전도관의 모든 명칭을 근본적으로 다 바꿔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도관을 기성교회와 차별을 두지 말고 기성교회와 같은 명칭인 교회로 하고 또 영모님을 감람나무라고 부르기 때문에, 육고를 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감람나무라는 명칭은 빼버리고 그저 장로님이 라고 한다.

교만 하시고 인사권 재정권은 일체 간섭하지 말게 하고 모든 것은 총회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정길 목사가 설명하는 뜻밖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늘의 사립이신 영모님의 근본 하늘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기가 막혀 믿어지지 않았다. 이런 발상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가 있었던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말도 안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곳 전도관에 왔는데요. 그 목적과 이유를 송두리째 다 부인하고 영모님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150만 전 교인들이 영모님 한 분을 보고 따라나온 사람들인데 그 전 교인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흥분해서 나오는 대로 말을 뱉어냈다. 그리고 이목사는 우리들을 설득하느라고 열을 올렸다. 우리는 더 이상 이목사와 말싸움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되어 그냥 목사 사택을 나왔다.

영모님이 안 계신 동안에 큰일이 벌어

지고 있는 것이다. 대마귀역사가 시작 되는 것이 틀림이 없었다. 당시 성북지관에 호랑이 권사인 김희신 권사가 있었다. 우리는 이권사에게 가서 이 내용을 설명을 했다. 그랬더니 그 권사는 당장 행동을 개시하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다하는 권사 10여 명을 동원하더니 그 즉시로 이만제단으로 달려 갔다. 그리고 이목사에게 그 총회현장 작성을 당장 취소하라고 하면서 고무신을 들고 들어가서 집단으로 이목사를 구타했다. 이목사는 다급한 맘에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작성하던 현장 초안을 권사들이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 버렸다. 그러나 이런 기가 막힌 발상이 이목사 개인의 발상으로 되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정길 목사는 당황하여 모든 총회 현장을 찢어버리고 취소시키는 것 같이 하였으나, 그 총회 현장 작성 주동자들은 그후 은밀하게 총회결성을 위한 계획을 차곡차곡 진행시켜 나갔던 것이다. 이때 주축이 된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강대헌 장로, 인천의 김문환 장로, 성동지관의 주진성 장로, 김천제단의 김원태 장로, 그리고 이정길 목사 등이었다. 사실 이분들은 영모님이 안 계신 동안에 막강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공문을 작성하여 전국 전도관에 총회결성을 알렸다. 지방에서는 본부에서 공식적으로 영모님 뜻을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야 되는 것으로 알았다.

결국 총회결성 발기인모임이 있다고 서울시내 관장들에게도 공문을 보내왔다. 서울 시내 관장들은 자동적으로 총대자적이 주어진다고 알려왔다. 발기인 대회에 참석한 서울관장들은 이 총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다 퇴장해버렸다. 그러나 총회는 강대헌 장로를 총회장으로 세워 결성되고 이후부터 총회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

그러나 서울시내의 관장들은 각자 제단으로 돌아가서 교인들에게 총회는 영모님 뜻과는 상관이 없는 마귀집단이라는 것을 일제히 설명하여 일러주었다. 서울 성동구제단에는 앞서서도 잠깐 설명한 것 같이 호랑이 장로로 불려지고 있던 총회를 적극 지지하여 발기인중의 한 사람인 주진성 장로라는 분이 있었다. 이 주진성 장로는 총회를 반대하는 관장과는 같이 못 있는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었다.

결국 총회에서는 총회를 반대하는 관장들을 인사발령을 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성동지관의 관장을 김천전도관에 발령을 냈다. 이 소식을 들은 서울 관장들은 성동지관에 몰려와서 절대 총회의 발령에 순종하면 안된다고 열을 올리고 있었다. 강대헌 총회장과 이정길 목사가 연일 성동구지관에 찾아와서 총회의 첫번째 인사발령인데 안가면 절대 안된다고 달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니 총회간부들이 영모님을 면회하여 성동지관장을 김천제단에 가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성동지관장은 영모님의 부름을 받고 면회 갔더니 영모님의 말씀이 "내가 나갈 때까지 지혜롭게 하라"는 것이다. 김천제단으로 가려는 말씀은 안계셨다. 그 다음날 영모님은 서울 관장들을 불러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서울관장들은 영모님의 정확한 의중을 감지하고 이 총회를 때려 없애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니 역부족이었다. 총회의 힘은 점점 막강해져 가고 그리고 지방제단에 사는 총회가 영모님 뜻으로 되어졌다고 알고 있다고 있는 것이다. 영모님을 일개 부흥강사로 전락시키려는 총회의 흑심을 지방제단에서는 전혀 눈치도 못채고 순종만 하고 있는 것이다. 총회의 세력은 점점 더 막강하여져서 영모님이 육중에서 나오신다 해도 그 총회 세력을 어찌할 수가 없게 되어가고 있었다.*

도덕경 해설

故有德司介

고유덕사개 고로 덕이 있는 사람은 큰 것을 지키고

도덕경 79장 해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기후와 토질과 환경에 의존하고 또 그것에 지배당한다. 수중 생물은 물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육상 생물은 육지에서 살아야 한다. 물론 예외적으로 수중 생물이 육상에서, 육상 생물이 수중에서 사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바로 인간과 더불어 사회를 이루고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사람 간에도 또 사는 부류가 나누어지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그것은 "가재는 내편이다"라는 속담처럼 사람도 생각이나 가치기 비슷한 사람끼리 무리지어 산다는 것이다.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육상 생물은 육지에서 살아야 한다. 물론 예외적으로 수중 생물이 육상에서, 육상 생물이 수중에서 사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바로 인간과 더불어 사회를 이루고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사람 간에도 또 사는 부류가 나누어지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그것은 "가재는 내편이다"라는 속담처럼 사람도 생각이나 가치기 비슷한 사람끼리 무리지어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인이 세속에서 세인과 더불어 몸을 담고 살기는 하지만, 그 정신과 마음의 중심만은 늘 하늘과 더불어 살지 땅의 범주에 속하는 일반 속인과는 천말하고도 내밀하게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법이다. 왜냐하면 겉모습은 다 같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속사람만은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간격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것이 도인과 세인이 함께 살지 못하고 도인이 도인과 더불어 사는 이유이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 듯, 새가 하늘에서 살 듯 도인은 도(道)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 도란 누가 보나 안 보나 항상 옳고 바르고 하나 된 화평의 길만을

고집하고 사는 덕(德)스런 사람들이 사는 삶의 시공간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세인은 사사로운 이익과 감정에 휘둘리며 일회일비하면서 그것을 흡족해하며 당연시하고 살아간다. 이것이 땅에 속하는 속인들의 삶이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도인의 삶을 이상하다 비웃으며 조롱하는 듯한 것은 왜일까? 그것은 도인은 항상 하늘(神, 하나님)이 자신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라 천명(天命)을 따른다. 그래서 그 마음에 순수본성(양심)이 이끄는 데 따라 올바른 마음, 생각, 행동, 일만을 고수하며 살 수밖에 없는 덕(德)스런 존재이다. 이헤타산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마치 어리석은 사람처럼,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세인은 어떤 때는 올바른 마음과 생각, 행동을 하다가도 자기의 이익과 자존심에 거슬리면 언제든 그 마음과 태도를 순바닥 뒤집듯이 바꾼다. 이를 이롭게 하여 번덕의 대명사인 무도인(無道人), 부덕(不德)한 사람으로 구분되어지는 삶의 경계인 것이다.

이것이 도인과 무도인의 다른 점이다. 얼핏 보기에는 같아보여도 도인과 무도인의 삶의 경계는 이처럼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인의 정신은 늘 하늘의 고고함과 푸른 청정함을 좇아 천명(天命)을 따르며 살기에 무병장수하는 것이고, 무도인은 땅의 분주함과 들끓는 불 속과 같은 혼란함 가운데서 살므로 그 천명(天命)을 재촉하여 단명(短命)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여! 하늘의 천도(天道)는, 비록 몸은 세속(죄와 고통이 함께 하는 세상)에 몸담고 살지만, 그 정신만은 하늘의 도(無爲自然, 無我地境, 武陵桃源)에서 유유자적 하며 한량없는 세월을 행복 하

게 보내는 참 해탈(解脫)의 도를 따라 사는 것이다. 세인들이여! 천도를 따라 사는 도인을 이상하다 나쁘다 말하지 말지며, 이런 삶의 오묘하고 무궁(無窮)한 진리를 터득하는 해안과 지혜를 키우는 진짜 공부(工夫)를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지?

和大怨(화대원): 큰 원망은 풀어도 必有餘怨(필유여원): 반드시 남은 원망이 있을 것이니

焉可以爲善(안가이위선): 어찌 그와 같은 것을 선한 것이라 하겠는가.

是以聖人右介(시이성인우개): 그래서 성인은 크게 되도록 돕기는 하지만

而不以責於人(이부책어인):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역지로 꾸짖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오

故有德司介(고유덕사개): 고로 덕이 있는 사람은 큰 것을 지키고

无德司(無덕사): 덕이 없으면 부서져 버릴 것을 지킨다

夫天道无親(부천도무친): 대저 하늘의 도는 이들(덕이 없는 사람)과 친하지 않으니

恒與善人(상여선인): 늘 선인(순수본성을 지닌 사람)과 함께 한다.*

김주호 기자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할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02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